십자가와 제자훈련(III), 삼중연합
(마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와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번째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삼중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루어야 될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라 하는 것이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정인데 그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먼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 예수의 제자는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는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라는 믿음과 인식이 확실하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정립되지 않은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불리셨고 당신 자신도 선생이라고 불리는 현실을 묵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의 제자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아주 크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서 자체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라는 명칭은 예수를 좇는 그리스도인들 그룹에 대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 그 당시 유대 관습을 따라서 제자라고 말한 것뿐이지 내용적으로 제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경험한 바대로 제자 삼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베풀어야 될 세례-같은 세례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하늘과 공중과 땅, 이 3중의 구조 삼층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늘은 영의 차원이고 공중은 우리 마음과 정신과 인격의 차원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몸의 차원이요 물질적인 차원입니다.

이 세 개의 차원이 먼 미래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나라는 인격을 둘러싸고 위에는 하늘이 있고 땅에는 몸이 있습니다. 나는 인격이고 정신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공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과 정신과 나라는 인격이 몸에 묶여 있습니다. 몸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몸이 갖고 있는 눈과 귀 코와 입 피부감각 등을 접하게 되는 세상에 끼어 들어가 살고 있고 몸을 통해 접하게 되는 세상에 간섭하고 몸을 통해 접하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 내 마음 상태가 좌우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바울서신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죄악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십계명을 어긴 것을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우리가 공중에 있는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과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날라 가는 마음의 화살이 되지 못하고 공중 위의 하늘,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몸으로 내려와서 몸에 묶여서 이 세상 환경에 좌우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죄악의 현실이고 이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침례, 물속에 잠겨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깁니까? 지금 내 마음이 몸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죽어 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보자면 몸으로 향하여서 몸에 묶여있는 마음이 이 몸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몸입니다. 몸에 묶여있으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몸에 종노릇 한다'고 합니다. 죄의 몸, 특별히 죄를 짓는 몸, 십계명을 어길 때의 몸만 죄의 몸이 아니라 몸 자체에 묶여있는 현실이 바로 죄악의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려나오는 것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한 여자가 성장해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이라는 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진입해 간다는 걸 말해요. 친정을 떠나서. 친정에 대해 죽는 겁니다. 친정에 대해 죽고 이제 완전히 호주의 이름이 바뀌어 지는 다른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수면 밑의 빙산의 부분처럼 커다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배후에 창조주 되심,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느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재벌총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벌 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 청년 시절이 지나 완전히 중년이 돼서 이 나라 안에 있는 경제구조 안에서 아버지가 벌리고 있는 그룹의 의미를 알 때까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창조주 되신다, 조물주 되신다, 아버지가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몸에 묶여있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밥 먹고 옷 입고 직장 나가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해요.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가서 제자 삼은 것까지는 좋아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왜 세례를 주게 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얘기는 고린도교회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세례라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식을 행할 때 어떤 때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어떤 경우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등이 생기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바울이 세례예식에 마음이 집착해서 서로 분쟁을 한다는 것은 세례예식을 의미 있게 해 주는 십자가 복음 사건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세례예식의 뿌리는 십자가 사건인데 물에 잠구고 침례시키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의미 있으려면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식의 차원 때문에 너희가 분파가 일어나서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본래 그 뿌리가 되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조차 깨어지니까 난 차라리 세례를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의 참 의미는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어디 저 필리핀 숲속에 있는 원주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미처 세례를 못 받은 채로 예수님을 믿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세례예식이 없는 채로..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세례예식은 없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럼 왜 세례라는 예식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교회 앞에 보여주겠습니까? 내적인 문제니까 보여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적인 문제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공동체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을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례예식을 베푸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받아 들였습니다. 라는 것을 물에 잠기는 행사를 통하여 예식을 통하여 공중 앞에 확정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 의도입니다. 이 연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삼중연합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삼중연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identify 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합의 형태는 사도바울이 서신서에서 무려 160회 이상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회라고 하는 의미는 사도바울 서신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를 동일시해서 연합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그 다음 자연적으로 두 번째 연합의 단계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히운 바 됩니다. 이 하늘에 앉아있는 형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만 홀로 승천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아버지를 상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늘의 공기를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를 상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상대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주님이 상대함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연합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승천함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연합의 형태를 이룬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연합의 형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3중의 연합으로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논문을 쓰고 나서 구두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두시험을 보는데 뭐 신학의 분야가 구약, 신약, 그리고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개의 신학부분에 대해 모두 다 각 방면의 전문 교수님들에게 구두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시험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되지요. 그 중 조직신학 분야에서 구두시험을 볼 때, 제 지도교수님과 구두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주제를 선정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주어졌어요. 칼빈 신학에 대해 준비해서 칼빈 신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범위를 좀 더 좁혀달라고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칼빈 신학에 대해서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칼빈 신학의 예정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해 나가다가 3, 40분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 교수님은 괴팅겐 대학 안에서 칼빈 신학의 석좌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지요. 독일에는 루터신학이 있고 개혁신학이 있어요. 이 분은 개혁신학을 담당하고 있었고 저는 또 장로교 사람이었으니까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어 논문을 썼는데, 세계 칼빈 학회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 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한 게 무엇이었냐 하면 칼빈사상을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요약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저 부분 부분 주제별로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 질문은 예상을 안 한 것뿐이지 칼빈을 연구하면서 내가 느낀 바는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대답으로 말씀을 드리자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참 많은 말씀으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구두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의 말씀이 저보고 신학해석의 수재라고 하셨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핵심구절은 칼빈 사상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후예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카이퍼, 루이스 폴콥이라든지, 찰스 하찌, 다빙크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으로서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이미 성경 속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칼빈을 몰라도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난리를 치는 것이 개혁신학에서 핵심 되는 중요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이루어져 있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지금 목하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리스도인이 되어야 바로 삼박자 축복의 삶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가 됩니까?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분의 몸이 죽은 사실을 내 몸이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 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연합의 단계는 동일시입니다. 그러면 이 동일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는 이 고백은 언제 합니까? 세례 받을 때 한 번? 아니면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면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십자가를 많이 언급하면 언급할 때? 적게 언급하면 또 적게? 아니면 주일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때 기억하는 겁니까?

언제예요? 수요일마다, 아침 공복에, 점심 때 저녁 때, 언제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동일시하느냐 이겁니다. 언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이 연합이 진짜 제대로 일어나려면 이 동일시의 의식의 사건,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동일시의 의식의 사건은 스물 네 시간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흐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검객이 일단 검을 받으면 잘 때도 옆에 끼고 잡니다. 밥 먹을 때도 옆에 끼고 있습니다. 24시간 검객으로 살아갈 평생 동안 그 검을 옆에 끼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에 대한 동일시를 통한 연합의 시간들이 직장에 나가서 한 참 바쁠 때는 끊어져 버려요. 자식과 씨름할 때는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 사건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제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제로 원으로 상징화해서 전달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빠지고 이런 저런 일에 휩싸여 버리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동일시가 중단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다시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서요. 죽은 자를 보면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몸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시한다는 것인데 몸은 살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이 상태가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의식이 상태로 끊이지 않고 흐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철길의 레일이 끊어짐이 없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중간 중간 끊겨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긴 쇠붙이 레일을 다 나무목을 밑에 받쳐서 쉴 틈 없이 이어서 나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이 밥 먹을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자식을 키울 때나 어떤 때든지 밑에 깔려 있어 흐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훈련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지요. 연합의 형태를 가르쳐주고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자식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자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공중에서 지금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향하고 있으면서 묶여 있습니다. 이 하나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몸으로 접하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지금 시체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매사가,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끼어들어가게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뭔가 포부를 갖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의욕에 들뜨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동일시의 죽음을 통하여 마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흐름 의식의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 갑자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슨 일 때문이라고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세상에 근거되지 않은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뭡니까? 돈이 많아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건강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식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갔거나 못 들어갔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연합의 형태가 이루어질 때 진행이 되거나 실제가 되면…

이 평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미 제 2의 연합의 형태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 2의 연합의 형태는 뭡니까? 첫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에게 내 마음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 가고 있는 동안에 함께 죽음에 연합했으니까 부활에도 연합하고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느끼고 있는 그 주님의 느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상대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 주님이 느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시는 모든 사랑이 다 내 것이 된다 이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럴 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이유가 뭐며 걱정이 무엇이며 무엇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다 내 사랑으

로 느껴집니다. 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승천합니다. 하늘에 앉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앉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내 것으로 느끼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면 좋아서 환장하는 거예요.

딸을 키웠는데 중매쟁이를 통해서 선을 봤어요. 그런데 이 딸이 좋아 죽는 겁니다. 이상적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물론 그 남자도 자기를 보고 좋아 죽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로 전화합니다. '엄마 엄마, 기가 막혀', ' 어머 그러니? 안 그래도 중매쟁이가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그렇구나, 마음에 들어? 어떻게 생겼어?' ' 엄마, 사진으로 본 것은 비교가 안 돼' 난리가 났어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른이 넘어서 시집도 못 간 딸이 서로 좋아한다는 상대를 만났다니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한 마디로 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보는 장소에 몸은 있지 않지만 마음이 가서 딸이 핸드폰으로 전해 줄 때 딸과 연합해서 선보는 장소에 가서 그 기쁨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상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 졌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산꼭대기가 좋긴 뭐가 좋겠어요?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님이 아버지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일곱 무지개 형상으로 나타나는 홍보석과 녹보석 등 온갖 보석의 빛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뵐 때 그 주님의 느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느낌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연합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형태는 뭡니까?
그러나 우리 몸은 여기 살아 있어요. 몸이 살아있다는 현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관계하실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대신에 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평강을 얻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몸에 이끌려 돈 버는 일에 끼어들어가는 내가 죽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밖에 없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속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여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기쁨을 하늘에서 다 기쁨으로 받아 내리는 거예요. 내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몸을 당신의 활동장소로 삼아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두 번째 형태죠? '내가 너희 안에', 세 번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을 향하여 하고 싶으신 당신의 뜻대로 이 몸

이 움직여가게끔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건지 내가 움직이는 건지 구분이 가고할 알 수가 있겠는가? 내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얘기를 함께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공중에 있는 마음이 몸에 묶여서 이 땅을 살던 상태가 죽어버리고 마음이 몸에서 풀려나와서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와 승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의 의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과 동일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의 내용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 의식의 흐름처럼 검객이 검을 옆에 24시간 365일 끼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이 24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형태로 승천을 따라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느끼시는 하늘의 모든 세계를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내 것으로 느끼게 되는 두 번째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진 자의 몸, 이제는 마음과 분리되어 있는 이 몸을 주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이루고 싶은 뜻을 위해서…
그래서 직장에 나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삼중연합, 이러한 연합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내일 주님께서 분부하신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을 붙이자면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거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정규예배를 참석하며 교회봉사를 해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지 않으시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원 복음방송은 오직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 존립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요.

자, 십자가와 제자훈련, 그리스도와의 삼중연합이 관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비하고 뭐라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오늘 하루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삼중연합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동일시로 시작되는 이 삼중연합이 내가 시장에 가든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실제가 되어서 참으로 복된 삶이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실제를 경험하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 알게 모르게 가르치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